- 국립공원 지정운동의 시대적 배경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에 갑자기 밀어닥친 남·북 분단에 이어, 1948년에 일어난 여순사변과 그리고 1950년에 터진 6.25동란의 3 년 전쟁을 거쳐서, 1961년의 군사혁명정부의 수립 등 약 20여 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매섭게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피폐, 그리고 사회적 빈곤과 혼란상태로 까지 몰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기강의 해이와 사회적 혼란을 틈탄 이기적 사리사욕의 탐욕자들에 의한 산림남벌과 불법적 도벌로 인하여 적국도처의 산림들은 막심한 손상과 피해를 입게 되어 산지들은 대부분 나무하나 없는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변모하고, 국토는 날로 더욱 황폐화 되어가고 있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실정을 돌이켜 보면 석탄, 석유, 전기 등 에너지 자원의 태부족으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국민생활의 연료난이 극심하여 생산성 에너지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취사와 난방용 등 자정생활용 필수연료조차 오직 산림의 땔감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전후의 각종 건물의 피해 복구와 건설자재의 수요도 외재의 수입조차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크게 산림남벌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지리산은 원래 산이 크고 그 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산세가 완만하고 토질이 두텁고 비옥하여 예부터 적송, 배송, 전나무, 가문비나루, 구상나무 등 건축용재로서 우수한 수종들이 다양하여 도처에 풍부한 원시림지대를 이루고 있어, 당시로서는 전국적으로 전체 산림 축적량의 무려 22%를 차지하는 산림의 보고로 알려져 있었다.

1945년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약20년 동안에 걸쳐서, 불법적 도벌과 지나친 남벌로 인하여 전국의 야산지대의 산림이 거의 고갈상태에 이르게 되자, 마지막 남은 지리산원시림 지대로 탐욕스런 도벌꾼들의 때지어 몰려들고 있었으며, 지리산 국유림 골짝마다 허술한 단속을 틈타 대규모적인 불법적 산림도벌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골짝저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발 1,500m 이상의 연하천 준평원과 칠선계곡 막바지 완사면, 그리고 해발 1,800m 높이의 제석봉 정상의 준고원 등,. 험준한 고산지대에 이르기까지 검은손들이 뻗어들어 갔으며, 더욱 연하천 준고원과 칠선계곡 막바지 그리고 해발 1,700m의 장터목 고산지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스리코터 군용차의 엔진을 떼어다가 원형 큰 톱날을 걸어 제재소를 차려놓고 대량제재로 인하여 목재톱밥이 산더미처럼 계곡을 메우도록, 지리산의 태고 천연 원시 밀림들이 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최대의 수난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러한 참상의 사실을 울분 끝에 당국에 고발을 하여도 당국도 단속을 못하니 속수무책의 무법천지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지리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운동의 동기

6.25 전쟁 종결 직후인 1955년에 당시 구례중학교 우종수 교사를 비롯하여 강기중 교사, 이규종 교사, 윤중섭. 안성문 등 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손재훈, 양한익, 성승준, 김요선, 김태준, 안기호, 제씨 등 일반 인사들과 더불어 “구례 연하반〈求禮 烟霞伴-지리산악회 전신 (회장 손재훈, 총무 우종수)〉” 이란 명칭으로 자생 산악활동 그룹을 결성한 이후로 자주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산악활동을 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산 원시림의 불법도벌 현장을 목격하게 됨으로서 그 참사에 대한 안타까운 개탄과 참을 수 없는 울분이 마침내 “연하반” 그룹으로 하여금 수려한 지리산 자연자원의 훼손 방지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책을 몰라 고민하고 있을 무렵, 1963년 이른 봄에 국립공원 전문학자 김헌규박사(金憲奎-이하여대생물학과교수)가 지리산 탐방 길에 올라 구례에 들렀을 때 우연히 “연하반” 총무를 만나게 된 인연으로 그 날에 “연하반” 여러 회원들과 합석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

그때 김박사는 그 전해인 1962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세계국립공원 회의가 열렸을 때 초청을 받아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귀국한 후, 처음으로 지리산을 찾게 된 터였다.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그날 담론의 화제는 주로 지리산이 당면하고 있는 대규모 산림 도벌에 의한 지리산 원시림의 훼손에 대한 참상과 그 방지대책에 대한 간담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김박사의 판단은 "지리산 생태계의 자연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선진국 전례로 미루어 보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아 정부 책임 하에 관리 수호하는 길밖에 별도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과 아울러 외국의 공원법 등 참고자료를 주시면서 앞으로 자기도 후원해 줄 테니 우선 급한 대로 열성적인 이곳 "연하반" 그룹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운동을 서두르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라는 진지한 조언과 감동적인 격려사가 뒤따랐다. 연하반" 회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국립공원 지정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심 하였다.

- 국민운동본부의 지리산지역개발조사

1963년 1월에 당시 군사형명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朴正熙) 의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재건국민운동본부 내에 상습적인 국민의 식량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잡곡 등 보조식품 증산과 아울러 다양한 산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리산 지역개발 조사연구회" 가 결성되었다.

초대 위원장에 류달영 박사, 후에 이관구 박사로 교체되었으며, 부위원장은 김헌규 박사와 윤상원 박사(서울대 농대학장) 두 분이 맡게 되었다. 그해 7~8월 사이에 실시된 지리산 지역개발조사에는 14개 분야(토양, 축산, 작물, 원예, 식용식물, 해충, 식물 병, 농업경제, 기상, 지형, 육수,. 양잠, 사회, 국립공원)에 걸쳐서 각 분담조를 조직하여 각 분야의 전문학자와 교수 등 가계의 권위자 60여 명을 조사전문위원으로 추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대학의 교수, 조교, 연구학생 및 현지 구례의 산악안내인("연하반" 다수회원) 등 연인원 120여 명이 동참 협력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규모 산지종합조사로서, 약 2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마친 다음, 그해 12월 28일에 4·6배판 707쪽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지리산 지역개발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출판을 보게 되었다.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이 보고서는 후에 지리산 지역개발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특히 국립공원분야 분담조의 김헌규 박사(조장). 우한정 박사(공원전문위원), 원병오 박사(공원전문위원), 이정우 조류학자(전문위원) 등에 의하여 국립공원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연하반" 의 간절한 지원요청에 의한 김헌규 박사님의 지원 약속이 주효했던 것이다.

- 세계국립공원협의회 공원전문가 파견 내한조사

1963년 10월 24일에는 미국소재의 세계국립공원 협의회에서 파견된 국립공원 설계전문가(미국인) 웰리암 하트(Willam Hart)씨가 유럽, 아시아 순방길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후보지를 조사차 갑자기 내한하여 약2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 후보지를 현지 답사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내한 방문한 것이다. 이때 정부의 주선으로 농림부산림국 우한정 박사 안내로 이곳에 도착하니, 우종수(禹鍾秀), "연하반" 총무와 김용선(金容善) 지리산 개발위원회 총무 및 서상선(구례군 행정직원) 등이 협력 안내하여 지리산의 노고단 반야봉, 피아골계곡 등을 현지 답사 하였으며, 하트씨는 시찰을 마친 후에 평가하기를 "지리산은 산세가 매우 웅장하면서도 그 경관이 수려하며, 수림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광활한 원시림의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하여 국제적 수준으로도 매우 훌륭한 국립공원의 후보지이다." 라는 호평과 아울러 대단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구례군만은 이에 고무되고 힘입어 새로운 용기와 희망에 넘쳐서 관민일체가 되어 더욱 열성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운동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 구례군민의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운동 적극추진

본 원고 제2항 끄트머리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돌이켜 보면 1963년 3월초에 국립공원 전문학자 김헌규 박사로부터 당시 지리산원시림 도벌방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선책은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진지하고 감명 깊은 조언과 격려를 받게 된 것은 매우 뜻이 깊고 다행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한 해결책으로서 "연하반" 으로서는 뜻밖의 큰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또 알고 보니 초창기의 불안정한 혁명정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수속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스러울 것 같았으나 김헌규 박사의 지니한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결국에 국립공원 추진운동을 경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연하반" 회원들은 구례군 관내 관공서 주요기관장과 지방유지 여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지리산의 원시림 도벌현장의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지리산의 자연보전은 장차 구례의 관광개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음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를 설명 납득케 하여 군민다수의 찬동여론을 조성한 다음, 다음날 4월 초순에 거군적인 군민대회를 개최하여 "지리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경성하고 정부요로에 제출할 건의문 작성과 전달할 군민대표 선출 등 준비를 서둘렀다.

군민대회에서 선임된 "지리산국립공원 추진 위원회" 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자에 김홍일 함명회사 사장, 부회장 두 분에 김무규 선생과 안보진앙조장 사장, 총무에 김용선, 조사부장에 우종수, 홍보부자에 양한익(연하빈 이사), 경리부장에 선현수(군 행정계장), 연락부장 김태준(연하빈 이사0 그리고 건의서 전달한 군민대표에는 김홍일, 안보진, 양한익. 우종수. 선현수 등 5명으로 선정되었다.

1963년 4월말 경에 군민대표 5명은 예정대로 상경하여 형명정부 박정희 최고의장은 면담 없이 건의문을 의뢰전달하고, 형명정부요로의 내무, 건설, 문교, 농림 등 각 분과위원장은 국민대표 5명이 같이 직접방문 면담으로 건의문을 전달하며, 지리산의 자연보존을 위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한편으로 그 당시의 구례군 총 인구수는 약 8만 명이고, 가구를 수는 1만 2천 가구였는데 극빈자 2천 가구를 제외한 1만 가구 회원이 매호당 회비 10 원씩(화폐개혁전의 1천환에 해당)을 자진 거출하여 10만원의 군민성금으로 대표단의 서울왕복 경비를 보충하였다. 건의문 전달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랫동안 형명정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 동안 형명정부 내의 진전 상황은 많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돌이켜 보면 1961년 5·16군사형명 성공 후, 5월 19일에 "국가재건최고의회" 의 결성으로 박정희 장군이 의장으로 취임하고, 1963년 1월 1일 일반국민의 정치활동이 해제되고, 1963년 8월 30일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도고,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로 민선국회가 성립 구성되었으며, 1963년 12월 17일 박대통령 취임식에 따라 제3공화국 성립으로 정부개편이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중대 정치적 사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으니 어떻게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편에는 국립공원 추진에 유리한 사건들도 다행히 일어나고 있었다. 1963년 7~8월 동안에 "재건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리산지역개발조사의 과정에서 국립공원 팀장의 김헌규 박사에 의하여 국립공원 문제가 긍정적으로 부각되었다. 1963년 10월 24일 세계국립공원협의회의 국립공원 설계 전문가 웰리암 하트씨 파견내한 으로, 현지답사 조사에 의하여 지리산이 우수한 국립공원 후보지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65년 봄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 국립공원 업무 부서를 건설부 국토계획국에 공원과를 신설하여 구례출신 박창권(朴昌權)이 공원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1963년은 제3공화국 성립으로 정부업무가 안정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제도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하여 정부의 호응과 관심도 매우 호전되어가고 있었으니, "지리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는 이에 고무되어 기회를 놓칠세라 다시 서둘러 추진운동을 재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963년 3월하순경, 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렸던 3 년 만에 다시 제 2차로 종전방식의 요령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진정서 5부를 작성하여 종전과 같이 군민대표 5 명이 상경하여 개편된 새 정부 요로의 각 장관들을 직접방문하고 건의진정서를 전달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한편 제2차의 경비조달은 군민회원 매가구당 20원씩의 1만 가구 회원전원의 자진찬조의 물심양면의 열성어린 협조정신이야말로 구례군민의 뜨거운 애향정신과 소망과. 지리산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열정어린 표출이 아니겠는가?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탄생

1966년에 이르러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반응이 크게 나타나 건설부 국토계획 국내에 국립공원 업무를 관장하는 공원과 직제가 생겨서 박창권 초대공원과장의 주관으로 그해 6월에 지리산국립공원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공원과의 요청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의 우종수 조사부장이 지리산 현지답사와 기본조사에 동참하여 협조하였으며, 동년 9월에 4·6배판 368쪽에 달하는 "지리산국립공원 기본조사보고서"가 발간되어 국립공원의 심사와 지정설치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마련되었다.

한편으로 1963년 11월 공화당 구례광양지구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현재(李賢宰) 의원은 국회 내 건설 분과위원과, 정부 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게 됨 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부위원장 김헌규 박사와 더불어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추진에 대한 적극적 후원자가 되어, 건설부 박창권 공원과장 실무자와 합심하여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다행히 국립공원 지정업무는 맹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1967년 3월에는 국립공원법의 재정을 보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20일에는 16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이 있었으며. 동년 11월 24일에는 제 1회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리사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 결의가 된 다음, 동년 12월 27일에는 국토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한 후, 1967년 12월 29일 드디어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정이 건설부장관에 의해 공고·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8만 구례군민과 "연하반"은 1963년부터 국립공원지정 운동을 시작한지 5년 만에 어렵게 성취할 수 있었던 대망의 숙원사업 성공의 기쁨을 모두 함께 큰 감동과 보람으로 맞게 되었던 j것이다.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구례 연하반"은 지리산국립공원 창설의 역사적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7년 12월 29일부터 그 이름을 "지리산악회" 로 개칭하여 부르게 됨과 동시에. 우종수 연하반 총무가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을 가꾸는데 더욱 전념하게 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이 탄생한지 7년 후인 1974년 12월에 건설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국립공원" 책자의 서두 연혁 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전남 구례군에서는 관민일체로 지리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조사에 협조 하는 동시에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등 열렬한 활동을 벌였으나 정부에서는 국립공원부서가 없는 형편이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구례군민이 정부보다도 4년이나 앞당겨서 국립공원 추진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 창설된 후에 경주, 계룡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이 연차적으로 이어지며 지정 설치되어 1988년까지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지정 신설됨으로서 우리의 금수강산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자연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6·25동란의 후유증으로 인한 불법 혼란세태로 빚어진 지리산 원시림의 자연과 참상에 대한 8만 군민의 통탄과 분노가 표출됨으로서 애향심으로 단합된 구례군민의 드높은 자연사랑에 애국정신이 마침내 국립공원 창설운동으로 이어져 크게 자연보전에 기여함으로서 우리국토 금수강산을 영원토록 지키게 한 큰 보람은 오래도록 구례군민의 마음속에 크나 큰 자랑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03년 10월 30일

(전 지리산악회장 우종수)

구례군지_전라남도여성회관장 정정신_2004